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지난 9월 14일,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365일 24시간 소통·연락이 가능해 남북 간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한 당국 간 협의 및 연락,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촉진,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대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사랑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이는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조사와 민간교류, 교역 등을 지원하고 방북·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향후 북측의 남북교류 사업자·당국자에 대해서도 정보 지원·안내할 계획이다.

남한 소장인 전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한 진중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개소식 후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가동되면서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주 1회, 실무급 회의는 주 2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는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대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와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 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서울 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체급을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 인원의 신분과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소장을 포함해 각 15~20명의 인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상호 협의를 통해 중립 가능하며 보조 인원은 별도 운영한다. 정부는 보조 인력까지 총 3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금 누그러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특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 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관계의 변수물이 아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진폭 지지한다.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우리 민족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공도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옳은 주장이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다. 이제껏 선언과 성명서로 끝난 남북 간의 합의와 접촉이 남북 상시적인 소통의 채널이 한 공간에서 마련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서울과 평양에 상주하는 상호 대표부로 승격 발전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대사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계없이, 비핵화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민족과 세계 앞에 남·북·미가 함께 해야 할 시급한 책무이지, 우물쭈물 미루고 간이나 보면서 풍기고 있을 과제가 아니다. 종전 65년,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족의 비운(悲運)을 외면한 죄과는 너무나 크다. 9월 18일부터 2박 3일 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동행할 14명의 공식 수행원과 52명의 특별수행원, 91명의 일반 수행원, 합 200여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2004년 6월, 대북인도지원물자(人道) 지원물자 인도단장(人道長)으로 인천에서 화물선에 지원물자를 싣고 북한 남포항을 거쳐서 평양을 다녀온 나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은 한반도 평화에 새 역사를 여는 장엄한 개막(開幕)이다.

5개월에 3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역사적인 방북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여부 관계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경제 4대 그룹 회장,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인사, 스포츠, 문화계 인사들까지 포함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통일로 가는 획기적인 진전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온 겨레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社說

추석 연휴 스미싱 경제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급증한 50만여건 탐지됐다.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문자가 1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의 협력에 오는 17일부터 총 5천363만명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한 달간 금융협회 및 중앙회, 5천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해 이용자에게 금융사기 수법, 대응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鷄	닭	계	鷄田赤城
田	밭	전	
赤	붉을	적	
城	재	성	

▶ 뜻: 계전(鷄田)은 응주(熊州)에 있는 고을이고, 적성(赤城)은 가주에 있는 고을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심정지 초기 목격자 처치가 중요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구조에서 가슴압박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치료의 시작단계이다. 심정지를 목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슴압박을 하고 있어야 한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시

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2~3배 향상시킨다. 설혹 심정지 상태가 아닌 환자를 잘못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큰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하여 환자발생인고를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화상담요원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심폐소생술을 하게 한다. 가슴압박은 충분한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하며,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심정지 후 최초 목격자가 4분안에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순전소생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운영하며 안전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송의 /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